

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 제1공약

성장률 우상향 지속성장 전환 불공정거래·불법 징벌 배상 기본소득·주택 등 기본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1공약'을 소개하고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먼저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 "기후에

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사업 재편과 신성장동력 사업을 지원·육성하겠다"며 "미래첨단산업 영역은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정성장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과 ▲사회적 대타협을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

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다. 제 공약 이행률은 평균 95%"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장병 격려하는 서욱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청해부대 34전 안전후송을 위해 떠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전 전원의 안전후송을 위해 작전명 을 오아시스 작전으로 명명하고 이날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2대를 해당 지역으로 급파했다. /국방부 제공

국민의힘 추석전 본경선 후보 확정

컷오프 실시 3~4명 압축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는 9월 추석 전까지 본경선 후보를 확정할 전망이다. 최소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해 3~4명까지 본경선 진출자를 압축한다는 것이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이날 3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9월 이후로 경선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금지조문이다. 추석 법상에 우리 후보자들이 화제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부적인 컷오프 횟수·배수 등은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쳐야 확정할 수 있다면서도 "단계별 컷오프는 해야겠다는 것이 경준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8월 경선버스 출발'을 전제로 "(당밖 주자들도) 기한 내 입당하는 분들은 두 단계에 걸쳐 컷오프가 가능하다"며 본경선에 오르는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선준비위는 오는 20일 당내 예비경선 후보로 이미 등록된 안상수 강성원 등 2명에 대해 첫 면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27.2%, 윤석열 26.8%, 이낙연 16%

현대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최재형 5.1%로 4위 경중

내년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08명을 상대로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2%, 윤 전 총장은 26.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0.4%포인트에 그쳤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0%로, 윤 전 총장과 격차는 10.8%포인트였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1%로 4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4.0%, 유승민

전 의원 3.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9%, 정세균 전 국무총리 2.6% 순이었다. 민주당 경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 39.0%, 이 전 대표 26.0%였다. 박용진 의원 6.2%, 정 전 총리 5.7%, 추 전 장관 4.3%, 김두관 의원 0.6%로 뒤를 이었다. 아권에선 윤 전 총장이 29.2%로 1강 체제를 이끈 가운데 유 전 의원 12.6%, 홍 의원 12.2%로 박빙을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8%, 권 전 감사원장 6.6%, 원희룡 제주지사 4.0%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 포인트, 응답률은 13.8%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리서치연구소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평당원' 최재형 첫 행보 부산서 쓰레기줍기 봉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7일 부산을 찾아 지역 당원들과 쓰레기줍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입당 후 첫 행보로 당원들과의 현장 활동을 택한 것이다. 언론이 미리 일정을 예

고하지 않은 깜짝행보였다. 이날 오전 같은 당 김미애(부산 해운대) 의원의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최 전 원장의 곁에는 부인 이소연씨도 동행했다. 최 전 원장 내외는 우비와 장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채 빗속에서 두 시간 가량 해운대 석대사거리 인근 동천교 하천변 일대를 돌며 거리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민주, 경선 3주 연기 유력...TV 토론 취소 이낙연측 강력 반발

송영길 "최고위원과 상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3주 정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9월말~10월초 국정감사 이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존 일정(9월 5일, 결선투표 시 9월 10일)보다 3주 가량 미룬다는 것이다. 1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당 대선 주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3주 정도 연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며 "일부는 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지만 19일 최고위에서 '3주

연기안'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이 3주 연기된다면 윤 추석 연휴를 지나 9월말 최종 경선 결과가 나오고, 결선투표가 이뤄진다면 10월 1일이나 4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선 후보들도 대체로 경선 연기에 대해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주 예정됐던 두 차례의 TV 토론이 취소된 것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차 대응에 따른 경선 연기는 불가피하지만 TV 토론 연기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경선 흥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다. 당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낙연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후 보 캠프에서는 방송 토론 연기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나고 있다. 박용진 후보도 "방송 토론이야말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국민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매개인데, 조금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번 주는 TV 토론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에는 TV 토론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여순사건 희생자 규모 밝히는게 첫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첫 번째로 주력할 일은 희생자 규모를 신속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여순항쟁 구례유족회의 초청으로 여수, 구례를 방문하였다. 특히 소 의원은 즉석에서 각 유족회를 대상으로 여순사건특별법 관련 현안 간담회 개최를 가졌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음 주 공포되면 내년 1월경 정식 시행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부칙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며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도의회 조례 제정, 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별·지역별 분배, 소위와 자문위 구성 등 치밀하게 준비행위를 마쳐서 법시행과 동시에 차질 없이 위원회를 가동하고 신고처를 설치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제2·3법보다 20년 늦게 출범한 건국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합병 공고

2021년 7월 12일 개최한 양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홍인(이하 '갑'이라함)의 사내이사 김일규는 (주)홍인공영(이하 '을'이라함)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 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021년 8월 21일까지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갑" (주)홍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81, KT전곡빌딩 2층 사내이사 김 일 규

"을" (주)홍인공영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554, 1동 1호 사내이사 김 명 철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1차)

본 회사는 2021년 7월 13일 총사원 동의를 해산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 신고가 없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7월 19일
해원에스티제삼차 유한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39(오선동)
위 청산인 정민호
연락처: 062) 958-706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한옥진(730412-XXXXXX)
· 최후주소: 광양시 광양읍 덕매길 65, 206호

피상속인 망 한옥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년 196호로 신청하여 2021년 4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7월 19일

· 상속인 1: 김리안(841025-XXXXXX)
2: 한초아(140318-XXXXXX)
상속인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참관자 모 김리안

상속인 1, 2의 주소: 광양시 광양읍 덕매길 65, 206호.

· 신고기간: 2021. 7. 19. ~ 2021. 9. 27.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1, 김리안의 주소

산행안내

7월25일(일)
▲광주서산악회 7월25일(일) 강원도 동해, 삼척시&40년만에 개반, 한국의장가게, 두타산(청옥산)협곡마천루, 베들렛지무릉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5:00, 동아병원 05:05, 롯데백화점 05:10, 광주역 05:15, 문예후문 05:25, 비엔누차장 05:30 *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임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

광수일보 분화출판매거진
이날
광고문의 227-9600